

프란치스칸 삶

수난과 변모

By Francine Gikow, OFS

수난과 변모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우리가 변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그렇다! 우리는 고통을 통하여 변한다. 그러니 우리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베네딕토 16 세 교황은 “사랑이란 우리자신을 끊임없이 정화하고, 버리고, 고통스럽게 변모시키는 과정이며 성숙해 가는 여정이다.”¹ 라고 말씀하셨다.

잘못 선택한 고통은 쓰라림이 될 수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의 삶에서 변화와 회개와 변모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 고통을 피하고 고통과 부단치기를 두려워 한다면, 영적 삶에는 변화와 성장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이 변화를 가로막는 요인을 제거할수 있을까? 우선 고통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의 한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아니,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끌어 안아야 한다. 끌어 안는다고? 정상으로 들리지 않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이 필수이기 때문에 고통없는 신앙생활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고통에는 하느님의 사랑이 이미 존재한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며 하느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우리가 고통받을때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이 “사랑”과 하나가 될때 큰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기도와 관상을 통하여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느님에게 의지하며 하느님을 체험하게 된다. 관상을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을 “고통받는 봉사자”로 이해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고통에 동참하며 하느님은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고, 그 상호간의 사랑은 다른사람에게 번져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의 하느님”과의 일치가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변화시킨다. 하느님의 사랑은 고통의 아픔을 없애 주고 나 중심의 삶에서 타인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게 한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렇게 권고하였다. “아무 것도 당신의 소유로 챙겨두지 마십시오. 당신을 위하여 모든것을 내어 놓으신 분이 당신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²

고통은 우리를 하느님의 눈으로 볼수 있게 한다. 우리도 고통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필요과 고통에 민감하게 된다. 우리는 그들과 고통을 같이 하며 그들이 하느님을 체험하지 못할때라도 우리는 하느님과 그들사이의 다리가 될수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말씀대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때, 우리는 그의 정배가 되며...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삶의 표양을 보여 줄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어머니가 됩니다.”³

이 주제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하여, 아래 시를 선물로 드립니다.

1 베네딕토 16 세 교황 저 나자렛 예수: 요단강에서의 세례부터 위대한 변모까지. Ignasian Press: 샌프란시스코. 2007, 제. 162.

고통의 신비

프란신 기코우(재속회원)

마음의 아픔, 그 생생한 아픔을 우리는 처음엔 부정하지만
그 아픔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는 슬픔에 빠진다.

그때에 우리는 다시 생각한다. “아마도 우리가 낯은 사람이 되면, 이 아픔은 사라지리라.”
하지만 그 아픔은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지칠때까지 울부짖지만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고
우리는 어딘가 잠시 숨어버릴수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밖으로 나와야 하고
그 상처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 아픔을 참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정화되고 하느님을 알게된다.
아픔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귀중한것을 알게하며
하느님결으로 이끌어 준다.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만 결국은 받아들이고
함께하며, 결코 벗어날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고통은 교훈이 된다.

마침내 고통의 신비를 깨닫게 되고 속죄를 체험한다.
이 체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끈다.
이렇게 고통은 나누면 모든이를 위한 사랑이 된다.

고통에는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다;
하느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더 가까이 우리곁에 계신다.
사랑이신 그 분은 이미 우리 앞에 계시고 세상만물을 위하여 영원히 온전히 계신다.

우리는 우리가 만난분을 세상에 들어내 보이고
그 분의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
“사람이 되신 사랑”에 우리가 의지할때 우리는 변모하게 되며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 모든 사람을 위한 고통의 신비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하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 고통의 의미이며,
그것이 변모이며 완전한 기쁨이다.